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이 몸에 무슨 소망있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같이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2:14-36

다같이

특 송

‘주의 은혜라’

김은희자매

말씀선포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찬539)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신청하는 분을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예배 정상화에 대해서는 오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4.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예배는 이렇게 재개 됩니다

지난 주일(5/31)부터 부분적으로 현장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다보니 10명 이하의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현재 롱아일랜드가 Phase 1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Phase 1 단계에서는 10명 이하의 모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6/6)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주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hase 2 단계에 접어들면 종교단체는 예배당 Occupancy의 25%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롱아일랜드는 Phase 1 단계이고, 6월 10일부터 Phase 2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월 14일 주일부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Occupancy가 25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면 62명 이하로 모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욕시는 6월 8일부터 Phase 1 단계가 시작되어서 10명 이내의 예배가 가능하고, 2주간 관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6월 22일부터 Phase 2단계가 시작되어서 예배당 용적 인원의 25%가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롱아일랜드에 있는 우리 한울림교회는 6월 14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상화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안전수칙인 거리 유지, 개인 접촉 금지, 손세정제 구비,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키며 입구에서 체온 확인까지 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현장예배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4,742